

# 아이디어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 '도메스트랄'의 '매직 테이프' 발명

갓난 아기의 기저귀에서 부터 우주복에 까지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매직 테이프.

사냥광이었던 '조르즈 도메스트랄'이라는 스위스 사람은 이 작은 발명으로 세계 100대 기업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벨크로社'를 탄생시켰다.

기술자가 되어 열심히 일하는 것이 꿈이었으나 기술을 배울 곳 조차 없어 취미로 시작한 사냥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쳐버린 도메스트랄.

사냥거리가 있는 곳이면 악마의 계곡도 두려워 하지않는 배짱 또한 두둑한 사나이였다.

1935년 어느 가을 날, 이날도 어김없이 사냥길에 나섰다. 친구라곤 언제나 '번개'라는 사냥개 한마리.

도메스트랄은 산토끼를 발견한 번개를 정신없이 뒤따라가다 그만 산우영이 우거진 숲속으로 뛰어들고 말았다.

번개의 도움으로 살찐 산토끼를 잡는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숲에서 나온 그의 모습은 가관이었다. 그의 옷 전체에 산우영 가시가 더덕더덕 붙어 고슴도치를 방불케 했다.

옷을 벗어 힘껏 털어보았으나 산우영 가시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산우영 가시는 왜 떨어지지 않는 걸까?'

보통사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쳐 버릴 일이었다. 그러나 기술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도메스트랄의 생각은 달랐다.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도메스트랄은 확대경으로 산우영의 가시를 살펴보았다. 그의 생각은 적중했다. 산우영의 가시는 갈고리 모양이었다.

순간 도메스트랄의 머리 속에는 매직 테이프의 원리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도메스트랄은 한쪽에 갈고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걸림고리가 있는 테이프를 만들어 서로 붙혀 보았다.

성공이었다. 서로 닿는 순간 철석 붙었다가 약간의 힘을 가할때만이 '직직'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신기하기도 했지만 여간 편리한게 아니었다.

그날 즉시 특허를 출원하고, '벨크로'라는 상호와 상표로 매직 테이프 생산을 시작했다.

기술자 겸 사장인 도메스트랄이 운영하는 벨크로사는 1년만에 미국과 일본에 현지 공장이 설립될 정도로 번창했다.

선풍적인 인기였다.

기차의 좌석 커버, 시계 밴드, 허리 띠, 운동화 끈, 주머니 덮개 등 매직 테이프의 용도는 무궁무진. 도메스트랄이 때돈을 번 것은 당연한 결과.

때마침 제2차 세계대전까지 터지자 군복과 군화에 까지 채택. 벨크로사가 세계적인 대기업이 되는데는 운까지 뒤따라 주었다.

## '츄잉껌'을 발명한 '야마모토'

세계 최초로 고무 대신 비닐을 사용하여 만든 츄잉껌.

전세계 껌 애호가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

“

산우영의 가시는 왜 떨어지지 않는걸까?  
보통사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쳐 버릴 일이었다.  
그러나 기술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도메스트랄의 생각은 달랐다.

”

는 추잉검을 발명한 일본사람 ‘야마모토’는 일본 제일의 식품회사로 손꼽히는 ‘하리스 주식회사’ 사장이 되었다.

이 이야기의 무대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폐망한 1945년 겨울의 일본 동경에 주재한 미군 부대 주변.

수많은 어린이들이 미군들이 씹고 버리는 껌을 줍기 위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이 처량한 모습을 벌써 며칠째 지켜보고 있는 한 사나이가 있었다.

전쟁이 끝나자 만주에서 귀국한 참전용사인 야마모토였다.

‘큰일이구나. 일본에서도 빨리 껌을 만들어야겠구나.’

야마모토는 껌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당시 일본에는 껌의 원료중의 한가지인 고무가 없었다.

이에따라 야마모토는 고무를 대신할만한 새로운 원료를 찾아보기로 했다.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백방으로 수소문했으나 마땅한 원료를 찾을 길이 없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찾아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 중에 ‘카네보오 방적회사’가 방탄 비닐을 생산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렇다. 고무 대신 비닐을 쓰면 되겠구나.’

새로운 원료를 찾아낸 야마모토는, 거기에 포도당과 박하를 넣어 버물러 보았다. 껌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비닐에 들어있는 초산 냄새 때문에 씹을 수가 없었다.

즉시 비닐회사를 찾아가 초산 냄새가 나지 않는 비닐생산을 의뢰했다. 당일로 원했던 비닐이 생산되었다.

세계 최초의 추잉검 발명도 이날 밤을 넘기지 않았다.

다음날 특허로 출원되고, 드디어 추잉검이 시장에 첫선을 보였다.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가내공업인 하리스식품의 생산으로는 일본시장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세계 50여개 국가의 수입상들이 몰려온 것이다.

대량생산을 위해 하리스주식회사가 설립되고, 추잉검은 세계 껌시장을 석권하기에 이르렀다. <王然中 記>

